인문계열(오전)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전)

성 명	
전 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5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극장의 비유'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경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비유다. 어느 도시에 영화를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계단식 극장이 있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남녀 주인공의 멋진 사랑을 다룬 영화다. 사람들이 가득 찼다. 영화는 시작되었고 모두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맨 앞줄의 누군가가 벌떡 일어섰다. 자기 혼자만 주인공의 멋진 모습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였다. 그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나도..."라고 말하며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 뒷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영화를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순간에 바로 앞줄 사람들에게 "좀 앉으시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 결례가 되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그리고 짜증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자기도 그냥 일어서 버렸다. 약 30분 늦게 극장에 들어온 사람이 "어?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할 정도로 이상하다. 모두 일어서서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있다가 맨 앞줄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 자기 혼자만 영화를 더 잘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 옆 사람도 의자 위에 올라간다.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영화를 본다. 만약 사람들이 이 영화관 속의 사람들을 보았다면 아마도 "미친 사람들"이라 했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 잘살겠다는 이기적 행동이 온 사회를 미친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오늘날 생존경쟁이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나 혼자만 잘살고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경쟁, 그런 '적대적 경쟁'의 구도 위에서는 어느 누구도 참된 인간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다.

– 강수돌, 『팔꿈치 사회』

(나)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다)

'경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이다.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말은 의미를 너무 확장한 것으로, 그 단어가 뜻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부정확한 표현은 때때로 경쟁이 필연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할 때 이용된다. 즉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쨌든 일종의 경쟁이고, 게다가 누구의 실패도 야기하지 않으므로 경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의미 있는 경쟁 옹호론이 아니라 단지 말장난일 뿐이다.

'협력'은 단지 비경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제도를 의미한다. 구조적 협력이란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은 당신이 성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노력의 대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성취에 의해 결정된다. 요컨대 협력적인 교실이란 단지 학생들을 함께 앉히거나, 서로 얘기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일의 성취는 개인이 아니라 그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협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개념이 모호한 어떤 이상주의와 연관하여 생각하거나, 기껏해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협력과 이타주의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협력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면 경쟁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구조적 협력은 흔히들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면 이타주의'라는 식의 이분법에 맞서는 개념이다. 그것은 상대방을 돕는 것과 스스로를 돕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비록 처음의 동기는 이기심이었다고 해도, 협력은 서로를 같은 운명으로 묶어준다. 협력은 현명하며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실용적인 선택이며, 타인과의 경쟁 없이도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 협력이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 알피 콘, 『경쟁에 반대한다』

[문제 1-1]
(가)와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상반된 방법을 보여준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가)의 목표 달성 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호남은 '푸른색' 영남은 '분홍색'…지역주의 벽 더 높아졌다.

민주당은 호남 의석을, 미래통합당은 영남 의석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0시 10분 현재 전국 개표율 69.5% 상황에서 호남 28개 지역구 중에서 27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TK(대구·경북) 25곳 중에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24곳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PK(부산·경남) 34곳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26개 선거구에서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21대 총선에도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나)

'통합당 심판' 현실화됐을 뿐, 21대 총선 '지역주의'는 오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국 시군구 250곳의 정당득표율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부산·대구 지역에서 고전했지만 전국적으로 득표율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총선에 비해 부산 지역의 정당득표율은 1.7%p 상승했고, 0.07%p 하락한 대구에서도 수성구·달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6곳에서 모두 득표율이 올랐다. 열세 지역인 경북·경남에서도 민주당은 4년 전에 비해 각각 3.25%p, 1.24%p씩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출처: 경향신문]

(다)

제시문 (가)와 (나)에서와 같이 언론에서는 두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얻은 정도를 지역주의 투표라 부른다. 아래의 <표>는 미래통합당이 전국득표율에 비해 영남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이 더 높은 정도(a)와 민주당이 전국득표율에 비해서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더 높은 정도(b)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영남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은 전국득표율에 비해 13.5%p만큼 더 높았고,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정당득표율은 전국득표율보다 17.8%p 더 높았다.

그러나 영호남민의 지역정당에 대한 지지는 지역주의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요소가 섞여서 나타난 결과이다. 달리 말하면, 두 정당의 영호남에서의 지지는 영남민과 호남민의 이념성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영남민은 진보적인 유권자보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미래통합당을 더 지지한다. 영남에서 보수적인 유권자가 진보적인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도(c) 때문에 초래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는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라 이념투표의 결과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는 진보적인 유권자가 보수적인 유권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을 더 지지한다.

따라서 영호남민이 자신의 지역정당에 보내는 차별적인 지지와 지역주의 투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정체성,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지역감정과 같은 지역주의적인 요인 때문에 지역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의 투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호남민이 자신의 지역정당에 보내는 차별적인 지지에서 영호남민의 이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지 차이를 차감한 나머지를 계산해야 한다. 예컨대, <표>에서 영남 지역주의 투표는 (a)-(c)로 계산되고, 호남 지역주의 투표는 (b)-(d)로 계산될 수 있다.

<표> 영호남민의 차별적 지역정당 지지와 이념적 구성 비율 차이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 지지 (지역득표율-전국득표율)		이념적 구성차이 영남: 보수 우세 정도 호남: 진보 우세 정도		지역주의 투표정도 영남: (a)-(c) 호남: (b)-(d)	
지역	영남 (a)	호남 (b)	영남 (c)	호남 (d)	영남 (e)	호남 (f)
15 대 대선	21.5%p	54.0%p	6.2%p	0.0%p	15.3%p	54.0%p
16 대 총선	17.0%p	29.4%p	-3.1%p	23.0%p	20.1%p	6.5%p
16 대 대선	23.4%p	44.2%p	-6.7%p	27.5%p	30.1%p	16.7%p
17 대 총선	16.3%p	25.0%p	0.3%p	44.4%p	16.0%p	-19.4%p
17 대 대선	16.0%p	30.3%p	13.3%p	18.7%p	2.6%p	11.6%p
18 대 총선	19.2%p	28.2%p	25.6%p	14.1%p	-6.4%p	14.1%p
19 대 총선	16.6%p	21.2%p	25.8%p	22.5%p	-9.2%p	-1.3%p
18 대 대선	19.2%p	40.8%p	16.6%p	-0.7%p	2.7%p	41.4%p
20 대 총선	13.5%p	26.7%p	11.5%p	19.0%p	2.0%p	7.7%p
19 대 대선	14.7%p	27.5%p	7.6%p	24.0%p	7.1%p	3.4%p
21 대 총선	13.5%p	17.8%p	0.0%p	17.8%p	13.5%p	0.0%p
평균	17.3%p	31.4%p	8.8%p	19.1%p	8.5%p	12.2%p

[문제2-1] ①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에 대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차이점을 기술하고, ②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다)를 통해 기술하시오. ③ <표>의 자료를 근거로, 21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① <표>에서 21대 총선 당시 지역주의 투표가 영남과 호남 중 어떤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가를 서술하시오. ② 영남민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호남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표>의 이념적 구성 차이와 지역주의 투표 정도를 통해 설명하시오. ③ 지역주의 투표는 증가해도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를 19대 대선과 21대 총선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인문계열(오전)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전) 모범답안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2

[문제 1]

[문제 1-1]
(가)와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상반된 방법을 보여준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가)의 목표 달성 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1]

(가)는 적대적 경쟁의 방법을 예시한다. 모두 앉아서 영화를 보면 비록 앞사람에게 화면 일부가 가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충분히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이 '나 혼자만' 잘살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동조하게 되고, 결국 영화를 본다는 목표를 어느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다.

반면 (나)는 협동의 방법을 보여준다. 벼로 비유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기대어 힘이 되어준다. 그들은 협동함으로써 외부의 억압이나 고난이라는 공동의 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벼 한 포기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시련을 마주하였을 때는 쉽게 쓰러졌겠지만 서로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견뎌내었다. 결국 타인과 협력하고 돕는 일은 나 자신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411자)

[문제 1-2]

(가)에서 영화관의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경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결국 어느 누구도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구조적 협력'의 원리를 파악한다면 사태는 달라진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금씩의 불편함을 참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다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키가 작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앞자리에 앉게 하면 뒷사람의 불편함은 크게 감소될 수 있다.(406자)

[문제 2]

[문제2-1] ①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에 대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차이점을 기술하고, ②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다)를 통해 기술하시오. ③ <표>의 자료를 근거로, 21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① <표>에서 21대 총선 당시 지역주의 투표가 영남과 호남 중 어떤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가를 서술하시오. ② 영남민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호남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표>의 이념적 구성 차이와 지역주의 투표 정도를 통해 설명하시오. ③ 지역주의 투표는 증가해도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를 19대 대선과 21대 총선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1]

① (가)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얻은 차별적 지지를 근거로 21대 총선에서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나)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은 득표율을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가)와 (나)는 지역주의 투표에서 지역주의적인 요소와 이념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두 지역민들이 자신의 지역정당에 보낸 차별적 지지를 지역주의 투표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③ 21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정도는 19대 대선 당시보다 증가하였고, 전체 기간의 지역주의 투표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남에서의 민주당 득표율이 약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8자)

[문제 2-2]

① <표>에 의하면, 21대 총선에서 영남과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는 각각 13.5%p와 0%p로 나타났다. ② 이 결과에 의하면, 21대 총선에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는 매우 강했던 반면 호남민은 지역주의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남민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는 전적으로 지역주의 투표 때문에 초래된 반면, 호남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전적으로 이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③ 영남에서는 19대 대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투표는 6.4%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가 1.2%p 감소했다. 그 이유는 19대 대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 영남에서 보수적인 유권자가 오히려 7.6%p 감소했기 때문이다. (387자)

인문계열(오전)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전) 채점기준

2021학년도 인문계열(오전) 채점기준

[문제 1]

[문제 1-1]
(가)와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상반된 방법을 보여준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가)의 목표 달성 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예시 답안

[문제 1-1]
(가)는 적대적 경쟁의 방법을 예시한다. 모두 앉아서 영화를 보면 비록 앞사람에게 화면 일부가 가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충분히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이 '나 혼자만' 잘살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동조하게 되고, 결국 영화를 본다는 목표를 어느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다.

반면 (나)는 협동의 방법을 보여준다. 벼로 비유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기대어 힘이 되어준다. 그들은 협동함으로써 외부의 억압이나 고난이라는 공동의 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벼 한 포기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시련을 마주하였을 때는 쉽게 쓰러졌겠지만 서로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견뎌내었다. 결국 타인과 협력하고 돕는 일은 나 자신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411자)

[문제 1-2]
(가)에서 영화관의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경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결국 어느 누구도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구조적 협력'의 원리를 파악한다면 사태는 달라진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금씩의 불편함을 참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다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키가 작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앞자리에 앉게 하면 뒷사람의 불편함은 크게 감소될 수 있다.(406자)

3. 세부 지침

① 내용면 ---------- 문제1-1, 1-2 각 20점, 총40점

[1-1]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법을 비교 -------20점

□ (가)와 (나)를 '목표 달성'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는가? (7점)
- (가)는 목표 달성 실패, (나)는 목표 달성 성공으로 설명하였으면 7점
- (가)와 (나) 중 어느 하나만 목표 달성과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면 4점
- (가)와 (나) 모두 목표 달성과 연결하지 못하였으면 0점

□ (가)와 (나)를 경쟁과 협력이라는 대립적 관계로 잘 설정하였는가? (5점)
- (가)는 경쟁으로, (나)는 협력(협동, 연대 등)으로 설명하였으면 5점
- (가)와 (나) 중 어느 하나만 경쟁과 협력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면 2점
- (가)와 (나) 모두 경쟁과 협력으로 연결하지 못하였으면 0점)

□ (가)와 (나)의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는가? (8점)
- (가)에서 이기적 동기(나 혼자만 잘살겠다)가 언급되면 2점
- (가)에서 일어서고 의자 위에 올라가는 행동이 언급되면 2점
- (나)에서 벼가 공동의 적(목표)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 언급되면 2점
- (나)에서 벼가 서로 기댐으로써 힘이 되어주는 상황이 언급되면 2점

[1-2] (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 ---------- 20점

□ (가)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였는가? (5점)
(참고: 제시문의 내용상 해결책으로는 '구조적 협력'이 빠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결책과 연관된 문제점은 '개인의 이익(행복,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임)
- 파악된 문제점이 해결책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5점
(예: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 다른 모든 사람을 적대시 등)
- 파악된 문제점이 해결책과 긴밀히 연결되지 않으면 3점
- 문제를 파악하지 않았으면 0점
(예: (가)에서 일어난 일의 과정을 서술하는 데 치중한 경우, 모든 사람이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결과만 언급한 경우 등)

□ (다)의 내용을 활용하였는가? (10점)
① '구조적 협력'을 언급하였다.
② 개인의 이익 추구에서 공동체의 이익 추구로 시야를 넓혔다.(구조적 협력을 풀어서 설명)
③ 협력과 이타주의를 구분하여 접근하였다.(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음의 동기는 이기심이었다고 해도, 협력이 이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등)
①~③ 중 세 개를 포함: 10점
①~③ 중 두 개를 포함: 7점
①~③ 중 한 개를 포함: 5점
①~③ 중 포함된 것이 없음: 0점

□ (가)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5점)
- 영화 관람 상황과 연결된 구체적 해결책을 하나 이상 제시하였으면 5점
(예: 조금씩 잘 안 보이더라도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앉는다(모두 불편함을 감수), 키가 작은 사람이나 시력이 나쁜 사람을 앞 자리에 앉게 배려한다(사회적 배려) 등)
- 극장 관람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면 3점
(예: 구조적 협력을 위한 일반적 방법)
- 해결책이 없거나 협력과 무관한 해결책이면 0점
(예: 화면이 앞 사람에게 가리는 일이 없도록 계단식 좌석의 높이를 변경하는 공사를 한다)

[2] 표현면 ---------- 문제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총10점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1] 문제 1-1, 1-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2]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문제 2]

[문제2-1] ①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에 대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차이점을 기술하고, ②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다)를 통해 기술하시오. ③ <표>의 자료를 근거로, 21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① <표>에서 21대 총선 당시 지역주의 투표가 영남과 호남 중 어떤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가를 서술하시오. ② 영남민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호남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표>의 이념적 구성 차이와 지역주의 투표 정도를 통해 설명하시오. ③ 지역주의 투표는 증가해도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를 19대 대선과 21대 총선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예시 답안

[문제 2-1]
① (가)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얻은 차별적 지지를 근거로 21대 총선에서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나)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은 득표율을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가)와 (나)는 지역주의 투표에서 지역주의적인 요소와 이념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두 지역민들이 자신의 지역정당에 보낸 차별적 지지를 지역주의 투표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③ 21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정도는 19대 대선 당시보다 증가하였고, 전체 기간의 지역주의 투표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남에서의 민주당 득표율이 약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8자)

[문제 2-2]
① <표>에 의하면, 21대 총선에서 영남과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는 각각 13.5%p와 0%p로 나타났다. ② 이 결과에 의하면, 21대 총선에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는 매우 강했던 반면 호남민은 지역주의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남민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는 전적으로 지역주의 투표 때문에 초래된 반면, 호남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전적으로 이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③ 영남에서는 19대 대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투표는 6.4%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가 1.2%p 감소했다. 그 이유는 19대 대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 영남에서 보수적인 유권자가 오히려 7.6%p 감소했기 때문이다. (387자)

3. 세부 지침

[1] 내용면 ----------문제 2-1, 2-2, 각 20점, 총40점

[2-1] (가)와 (나) 주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고, 이들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해석 능력 평가 ----------20점
① (가)는 두 정당이 자신의 지역에서 얻은 차별적 지지를 근거로, (나)는 민주당의 영남에서의 정당득표율 변화를 근거로 지역주의 투표 정도를 평가했다는 사실을 지적 (6점).
② (가)와 (나) 모두 지역주의적 요소와 이념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두 지역민들이 지역정당에 보낸 차별적 지지를 지역주의 투표로 본다는 점 제시 (6점).
③ 21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정도가 최근 선거들에 비해 더 강해졌다는 사실 또는 전체 기간의 지역주의 투표 평균보다 더 높다는 사실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나)의 입장을 반박 (8점)

[2-2]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문에 부합하는 자료분석 능력 평가 ----------20점
① 21대 총선에서 영남과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가 각각 13.5%p와 0%p라는 점을 관찰하고, 영남 지역주의가 더 강했다는 사실 지적 (6점)
② 영남의 미래통합당 지지는 전적으로 지역주의 투표 때문에 초래된 반면, 호남의 민주당 지지는 전적으로 이념적인 것이라는 사실 지적 (8점)
③ 19대 대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가 (6.4%p) 증가했으나 보수적인 유권자는 오히려 더 (7.6%p)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제시 (6점)

[2] 표현면 ----------문제 2-1, 2-2, 각 5점(상: 5, 중: 3, 하: 0)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사용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1] 문제 2-1, 2-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2]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후)

성 명	
전 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6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는 사실을 꺼려하며 무리의 주변을 맴돌며 기웃거리거나 비굴한 웃음을 흘리지 않는다. 독일의 심리상담가 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의 말을 삶 속에서 깨우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리를 짓는 일에 열심이다. 모임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연락을 하고, 시간을 쪼개어 약속을 잡는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날에는 우울해지고 나만 빼놓고 저희들끼리 만나고 있을까 봐 걱정을 한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볼까봐 차라리 굶기를 택하고, 결혼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되어줄 친구들이 없는 게 부끄러워 대행서비스를 통해 하객을 사기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그런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그것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다. 쇼핑을 할 때 혼자라면 타인의 취향을 강요당할 염려가 없으니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다. 아직까지 혼자 뷔페에 가거나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을 당당히 구워 먹고 나온 적은 없지만, 홀로 기차를 기다리며 역전 재래시장의 식당에서 순댓국을 안주 삼아 소주 반병에 얼근히 취했던 기억은 내가 경험한 어떤 여행의 추억보다 멋진 것이다.

외로워서 그리운 게 아니라 그리워서 외로워져야 사랑이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사랑하기보다는 지나친 포만감을 경계하며 그리움의 공복을 즐기는 편이 낫다. 무릇 성숙한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주고픈 만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깜냥껏 베풀면 그만이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가 없어도 서운하거나 불안치 않다. 진정한 믿음과 이해는 미주알고주알 일상을 보고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삶은 어차피 홀수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그 사실에 새삼 놀라거나 쓸쓸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 충만한 자유로움을 흠뻑 즐길 수 있다면, 홀로 있을지언정 더 이상 외톨이는 아닐 테니까. 홀연히 왔다 홀연히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질겅질겅 자기 암시의 구호를 짓씹는다. "외로워져야 자유로울 수 있다!"

— 김별아, 『삶은 홀수다』

(나)

오랜 경기침체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 각박해지는 근로 환경에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점점 여유를 잃어갑니다. 중장년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할애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숨 쉴 틈이 없고 각박해지니 '함께'하기보다는 '혼자' 편하기를 선호합니다. 물론 저도 매일 거의 '혼밥'을 하지만 이런 경향이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은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해서는 아닐 겁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함께', '더불어'를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지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더치페이' 문화가 자연스러워졌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편치 않은 게 싫고, 홀로 할 때보다 함께할 때 비용이 더 드는 것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꼭 필요한 것에만 쓰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즐긴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인의 의식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처럼 회자되는 것은, '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현실을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뭐든 혼자 하는 '혼족의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고독사의 증가와 같은 쓸쓸한 사회적 현상을 동반할 겁니다. 어제의 인사가 오늘의 안녕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장담할 수 없고, 각자 사는 일에 바쁘다보면 그 사람이 며칠씩 안 보여도 그도 바쁜 모양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기우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일상에 파묻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쳤고 결국 부고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 상념으로 괴로워지고 엄청난 아픔이 밀려옵니다.

'함께'하고 '더불어'하는 걸 즐거워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함께'하고 '더불어'하는 일에 무심하고 귀찮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작은 힘이나마 필요한 곳엔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보다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 한동일, 『라틴어 수업』

(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면서 혼밥, 혼술에 이어, 혼영(영화관람), 혼공(공연관람), 혼행(여행), 혼쇼(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나홀로족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여파로 인해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20대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20대 남녀 2,928명을 대상으로 '나홀로족 트렌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20대 응답자 중 88.7%가 '평소 혼밥, 혼영 등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고 답했다. 20대들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이 90.2%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혼공(혼자서 공부하기, 68.9%), △혼영(혼자서 영화보기, 53.6%), △혼강(혼자서 강의수강, 50.0%), △혼술(혼자서 술 마시기, 27.1%), △혼행(혼자서 여행하기, 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들이 혼밥 등 평소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였다. 설문조사에서 20대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혼자가 편해서(46.1%)'를 1위에 꼽았다. 이어 2위는 '내 취향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31.8%)', 3위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25.5%)'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혼자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16.7%)', '돈이 덜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16.7%)', '별 이유 없이 그냥(16.3%)',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 할 일이 많아서(10.5%)',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자 활동하는 게 안심돼서(9.4%)' 등의 이유가 있었다.

— 잡코리아×알바몬 통계센터(www.jobkorea.co.kr)

[문제 1-1]

(가)와 (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두 입장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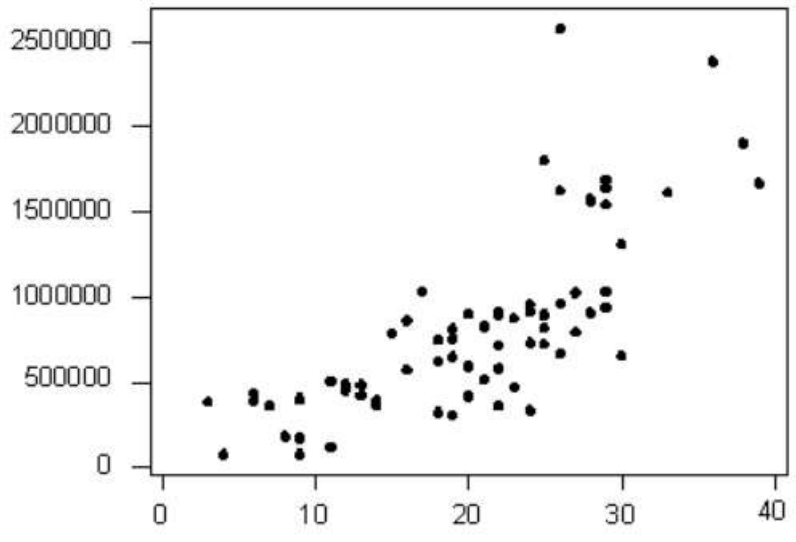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SAT 성적은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수학 과목에 대한 백인 학생의 평균 성적은 800점 만점에서 534점이었던 것에 비해 흑인 학생의 평균 성적은 428점으로 나타났다. 백인과 흑인 학생의 이러한 성적 차이에 대해 인종차별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백인과 흑인의 선천적인 지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백인 가정이 흑인 가정에 비해 더 부유하기 때문에 백인 학생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백인 부모들은 우수한 학군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거나 SAT 선행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들에 비해 더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는 것이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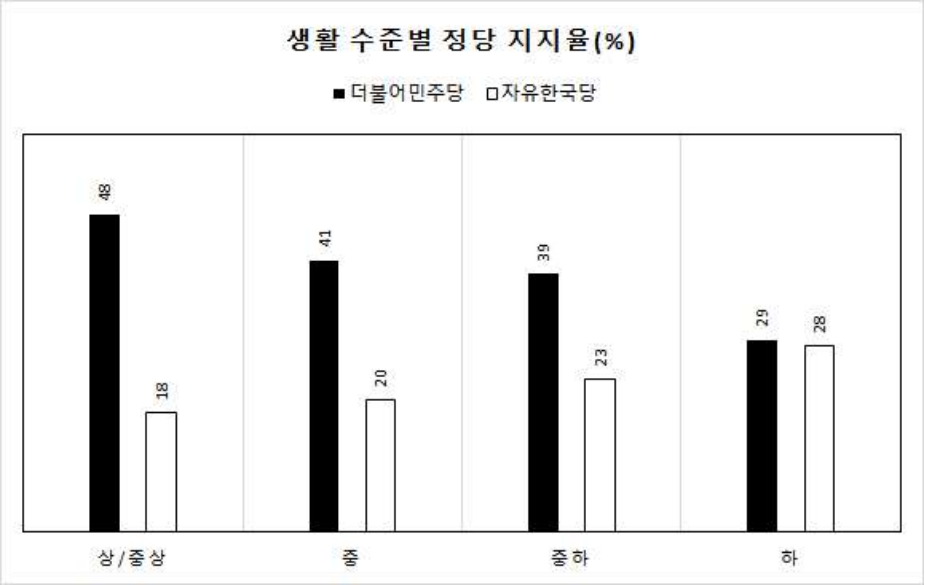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가로 축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수를 나타내고 세로 축은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을 관찰한 사람은 더 많은 소방관이 출동할수록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https://courses.lumenlearning.com/

(다)

한 신문사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핵심 정책 방향과 정당 지지율이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활수준별 정당 지지율은 일반적 상식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보였다. 생활수준에서 '상·중상' 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48%, '중' 41%, '중하' 39%, '하' 29%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율은 낮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생활수준 '상·중상' 18%, '중' 20%, '중하' 23%, '하' 28%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세금 축소' '복지 확대 경계' 등 부유층 입맛에 맞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치 활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서민 지원' '복지 확대' 등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에 힘을 실었다.

일반적으로 '부자(富者)의 정당'은 자유한국당, '빈자(貧者)의 정당'은 민주당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다. 주요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을 들이는 계층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출처: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60311252988400

라)

<표>는 연령층에 따른 월평균 소득과 21대 총선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대와 70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연령층에 따른 월 평균 소득과 민주당 지지율

연령층	월평균소득 (만원)	민주당 지지율
20 대	156.7	40.6%
30 대	320.0	56.3%
40 대	364.5	58.2%
50 대	340.0	51.2%
60 대	235.0	42.2%
70 대	168.0	41.0%

[문제2-1] (가)에서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 ①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②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은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떠한 분석결과를 얻을 때 뒷받침될 수 있는가?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신문기사 결론에 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라)의 자료를 통해 지적하시오. ② (라)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사례들을 비교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③ (가)의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나)의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과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후) 모범답안

[문제 1]

[문제 1-1]
(가)와 (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두 입장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1]

(가)는 '홀로 있음'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많은 사람이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홀로 있음'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홀로 있음'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홀로 있음'을 통하여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개성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홀로 있음'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나)는 점차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 생기는 피로감 때문에 '혼족의 시대'가 확산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고독사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11자)

[문제 1-2]

(옹호)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혼자 행동하기 적합한 일에는 영화나 공연 관람, 쇼핑 등이 꼽히고, 혼자 하는 이유로 '내 취향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라는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2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십상이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면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고, 혼자 사색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외톨이라고 여겨질 때 생기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421자)

(비판)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였다. 즉 20대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뭐든 혼자 해결하는 '혼족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고독감의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는 비단 사회적 전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까운 친구,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요즘,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419자)

[문제 2]

[문제2-1] (가)에서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 ①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②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은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떠한 분석결과를 얻을 때 뒷받침될 수 있는가?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신문기사 결론에 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라)의 자료를 통해 지적하시오. ② (라)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사례들을 비교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③ (가)의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나)의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과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1]

①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백인과 흑인의 성적을 비교해야 하고, 이러한 비교 결과 백인과 흑인의 성적에 차이가 없을 경우,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②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종 사이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SAT 성적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화재규모가 클수록 소방관이 많이 출동하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소방관이 화재 손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화재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방관이 출동하였고 큰 화재 손실을 본 것이다. (399자)

[문제 2-2]

① (다)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라)는 소득수준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이유가 소득수준 때문인지 연령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② 신문기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층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세 주장의 공통점은 피상적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인종을, 두 번째 주장에서는 소방관의 수를, 세 번째 주장에서는 소득수준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이유(변수)들이 결과(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411자)

인문계열(오후)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후) 채점기준

2021학년도 인문계열(오후) 채점기준

[문제 1]

[문제 1-1]
(가)와 (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두 입장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예시 답안

[문제 1-1]
(가)는 '홀로 있음'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많은 사람이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홀로 있음'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홀로 있음'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홀로 있음'을 통하여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개성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홀로 있음'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나)는 점차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 생기는 피로감 때문에 '혼족의 시대'가 확산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고독사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11자)

[문제 1-2]
(옹호)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혼자 행동하기 적합한 일에는 영화나 공연 관람, 쇼핑 등이 꼽히고, 혼자 하는 이유로 '내 취향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라는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2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십상이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면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고, 혼자 사색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외톨이라고 여겨

질 때 생기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421자)

(비판)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였다. 즉 20대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뭐든 혼자 해결하는 '혼족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고독감의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는 비단 사회적 전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까운 친구,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요즘,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419자)

3. 세부 지침

[1] 내용면 ---------- 문제1-1, 1-2 각 20점, 총40점

[1-1] '홀로 있음'에 대한 두 입장을 비교 -------20점

□ (가)와 (나)의 대조적인 입장을 뚜렷이 드러냈는가? (4점)
- 대조를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문장, 어구 등)이 있으면 4점
- 대조를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문장, 어구 등)이 없으면 0점
  (예: (가)는 '홀로 있음'을 긍정적으로 파악, (나)는 '홀로 있음'을 부정적으로 파악)

(가)를 다루면서
□ 사람들이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가? (4점)
- 사람들이 '홀로 있음'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 '홀로 있음'의 장점을 언급하였는가?(4점)
- 개성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나)를 다루면서
□ 최근 각박한 현실로 인해 '나 혼자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는가?(4점)
- '나 혼자 문화'의 확산 '현상'을 언급하면 2점
- '나 혼자 문화'의 확산 '원인'을 언급하면 2점

□ '나 혼자 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함께' 또는 '더불어'의 가치를 강조하였는가?(4점)
- '나 혼자 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 2점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로 '함께' 또는 '더불어'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면 2점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 또는 (나)를 근거로 활용하여 옹호하거나 비판한 경우 ---------- 20점

<옹호의 경우>

□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가?(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20대의 특성(개성이나 취향을 중시함)을 규정하면 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만 20대의 특성을 규정하지 않으면 5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 않고 20대의 특성을 규정하면 5점
- 설문조사 활용이 없고 20대의 특성 규정도 없으면 0점

□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삼았는가? (10점)
- 혼자 있음이 ①개성(취향, 특성), ②(정신적) 자유의 증대와 연결되었는가? ③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비판(극복)하는가?

3개를 활용: 10점
2개를 활용: 7점
1개만 활용: 4점
0개 활용: 0점

<비판의 경우>

□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가?(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20대의 특성(혼자가 편함, 남들과 있으면 불편함)을 규정하면 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만 20대의 특성을 규정하지 않으면 5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 않고 20대의 특성을 규정하면 5점
- 설문조사 활용이 없고 20대의 특성 규정도 없으면 0점

□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삼았는가? (10점)
- 혼자 있음이 ① 고독사 등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가? ② 가까운 친구나 이웃 등 개인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가? ③ '함께'나 '더불어'의 가치가 언급되었는가?

3개를 활용: 10점
2개를 활용: 7점

1개만 활용: 4점
0개 활용: 0점

[2] 표현면 ---------- 문제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총10점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1] 문제 1-1, 1-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2]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3]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5점 감점

[문제 2]

[문제2-1] (가)에서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 ①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②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은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떠한 분석결과를 얻을 때 뒷받침될 수 있는가?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신문기사 결론에 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라)의 자료를 통해 지적하시오. ② (라)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사례들을 비교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③ (가)의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나)의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과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예시 답안

[문제 2-1]

①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백인과 흑인의 성적을 비교해야 하고, 이러한 비교 결과 백인과 흑인의 성적에 차이가 없을 경우,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②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종 사이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SAT 성적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화재규모가 클수록 소방관이 많이 출동하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소방관이 화재 손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화재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방관이 출동하였고 큰 화재 손실을 본 것이다. (399자)

[문제 2-2]

① (다)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라)는 소득수준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이유가 소득수준 때문인지 연령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② 신문기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층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세 주장의 공통점은 피상적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인종을, 두 번째 주장에서는 소방관의 수를, 세 번째 주장에서는 소득수준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이유(변수)들이 결과(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411자)

3. 세부 지침

[1] 내용면 ----------문제 2-1, 2-2, 각 20점, 총40점

[2-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잠복변수를 발굴하는 능력과 잠복변수 통제를 통한 독립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 분석 능력 평가 ----------20점

① 부모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백인과 흑인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백인과 흑인의 성적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 지적 (6점)
② 같은 인종을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SAT 성적도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 지적 (6점)
③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소방관 규모(독립변수)와 피해액수(종속변수)를 매개하는 다른 이유들(화재규모, 출동시간, 기타 등등)을 원인으로 제시 (8점)

[2-2]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한 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잠복변수의 통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평가----------20점

①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소득뿐만 아니라 연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득과 연령의 독립적인 효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적 (6점)
② 소득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대에서 소득 차이에 따른 정당지지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사실 지적 (6점)
③ 세 주장 모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돈하고 있으며, 독립변수(제시된 원인)가 아니라 잠복변수(다른 원인)가 종속변수(결과)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 지적 (8점)

[2] 표현면 ----------문제 2-1, 2-2, 각 5점(상: 5, 중: 3, 하: 0)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사용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1 문제 2-1, 2-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2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